

2017년 9월 18일, 한경면 용당리 부순여 씨 댁, 이효순 조사.  
부순여(여, 1928년생, 한경면 용당리)

- 줄거리: 어떤 여자가 염전에서 게 구멍에 소변을 보는데 게가 음부를 꼬집는 바람에 봉변을 당했다.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였다.

**[조사자]** 옛날 어른안티 어떤 말 들어납디가?

**[제보자]** 어른들한티는, 옛날에 소금밧 헤낫주게. 소금밧 허는디 어떤 여자가 오줌 마려우 난 겟이 고냥데레 오줌 싸난, 게가 나왕 좁져 불엇어.

경 허난 물 촇이레 뎅기당 보난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 잇어. 뎅기당 보난 “아고, 공알이여. 아고, 공알이여.”

허난, 그 하르방은 몽둥이로 딱 찍으난 이레도 하나 사고 저레도 하나 사고 허난 “아이고, 새여. 아이고, 공알이여.”

허난, 물 찾으러 뎅기는 사람은 무사 정 했인고. 니빨로 겟일 씹으난 니빨에도 하나 톤아져 불고. 경 헤부난 말 촇이레 뎅기는 사람은

“아, 냄새가 지독하다.”

니빨로 씹으난게. 떼어 주난, 좁진 사람. 그 여자는 돌아나 불고, 장사허는 사람이

“고마워요, 고마워요. 떼어 주난.”

경 헷젠헤고.

- 핵심어: 소금밧(소금밭), 겟이(게), 말테우리, 고냥(구멍), 오줌, 여자